

전남도,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 ‘대통령상’ 광주시, 5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 선정 영예

도, 12만명 고용 창출 성과
시, 동반성장 패키지 등 호평

전남도가 21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광주시는 공시제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일자리창출에 대한 지역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자리대책의 계획·집행·성과와 고용지표의 증감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자치단체를 시상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6년 종합대상에 이어 두 번째로 수상해 8년 연속 일자리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그동안 전략산업과 연계한 블루 이코노미 청년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900여개의 일자리와 200여명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202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시상식에서 대상 깃발을 힘차게 흔들고 있다. /전남도 제공

청년이 전입·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순환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민선7기 1,000개 기업유치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지역인재 채용 목표관리제, 감소 기업 지원 등 일자리지향형 투자유치를

추진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906개 기업과 25조원 규모 투자유치를 이끌어 2만9,000명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를 포함해 도청 각 실·국에서 추진한 각종 일자리 사업으로 총 12만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또 22개 시군과 함께 해마다 ‘전남도 일자리 한마당 행사’를 진행,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을 시군과의 협업으로 확장하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일자리창출 시너지 효과를 높였다. 민선7기 동안 124개 사업에 246억원을 투입한 전남도 자체사업 ‘시군 동행 일자리사업’을 도와 시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 4,248개를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

이같은 노력으로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전년 대비 고용률 0.7%포인트 상승(전국 2위), 실업률 0.1%포인트 하락(전국 하위 3위) 등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 정량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정부의 반도체 분야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호응하면서, 광주·전남 상생 차원의 반도체사업 육성 등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8년 종합대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연속 일자리정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광주시는 ▲주력산업 고용안정을 위한 동반성장 패키지 지원사업 ▲지역민이 직접 만든 상생의 일터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건설’ ▲민간주도의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유치 ▲생체의료 인프라 활용·육성을 통한 고급인재 일자리 창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광주’ 생애주기 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지자체 주도의 ‘일자리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체계 구축’과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전환을 위한 신기술 인재양성과 디지털일자리 창출’, ‘청년일자리 통합 멀티플랜, 광주 청년드림사업’, ‘취약계층 노동문화 개선 및 노사상생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등이 호평을 얻었다.

더불어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우수사업 부문에서도 ‘임원아동 전문케어 서비스 구축 및 인력양성사업’으로 최우수상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5년 연속 일자리분야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며 “반도체, 차세대배터리,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경제성장동력을 중심으로 신경제지도를 완성하고 새로운 광주, 내일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오선우 기자

7월 남도 전통주에 함평 ‘천지향 복분자술’

전남도는 21일 여름철 보양식에 곁들이기 좋은 함평 나비골농협 레드마운틴(대표 김영철)의 ‘천지향 복분자술’을 7월 대표 남도 전통주로 선정했다.

복분자의 제철은 6-8월로 자양 강장에 좋다고 알려져 여름철 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실제로 복분자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 안토시

아닌과 함께 갈슘, 철, 엽산, 아연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

천지향 복분자술(알코올 15%)은 물 맑고 깨끗한 청정 함평에 위치한 나비골농협에서 엄선한 복분자를 2년 이상 발효·숙성해 만든 술이다.

/오선우 기자

오늘 여수서 국제해양포럼 열린다

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해양수산부는 21일 “‘2012 여수세계박람회 10주년 기념 국제해양포럼’을 22일 여수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수세계박람회는 2012년 5월부터 3개월간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104개국·10개 국제기구가 참가하고 총 820만명이 방문했다.

문했다.

이번 포럼에는 해수부·전남도·여수시 관계자와 해양 분야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하며, 행사 내용은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먼저 홍승용 전 인하대 총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여수박람회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여수박람회의 유산인 여수 선언의 계승과 발전 방안 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1세션에서는 여수 선언의 실천방안과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등 여수세계박람회의 유산과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여수와 남해안권 지역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이 논의된다.

특별행사로 진행되는 지역 세션에서는 여수지역의 새로운 미래비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송갑석 “대통령실, 홍보대사 팔 비틀고 민생 목 졸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예비경선 후보인 송갑석 의원은 21일 SNS를 통해 203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의 무례한 기념 촬영 논란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송 의원은 “팔이 비틀린 이는 발을 동동 구르며 고통을 참고, 팔을 비트는 이

는 아랑곳 하지 않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무례함이 참으로 경악스럽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도 부족한 상황에,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이라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진 한 장 남겨 본인 홍보를 하겠다고 안면볼수하고 있다”고 비판



했다. 이어 “이날의 홍보대사들은 부산엑스포의 홍보를 위해서 위촉된 분들이지, 당신들의 홍보를 위해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다. 즉각 사과하고 민생을 돌보는 시늉이라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서삼석, 농약 재등록 안전성 평가 의무화법 발의

유해성이 우려되는 농약에 대한 안전성 평가 절차를 의무화하고, 최초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재등록 할때 보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 한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기존에 농약 재등록을 신청할 때 농촌진흥청이 이미 제출한 시험 성적서의 내용이 파악되지 않을 경우 미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등록된 농약이 가축과 사람에 대한 유해



성 우려가 있을 경우 심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서 의원은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 농약에 대한 관리 및 검증이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철현 “동물보호법, 보완 입법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갑)은 21일 “인명사고를 일으킨 사고견과 버려진 유기견 등 반려동물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개가 사람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심지어 사망케 한 경우에도 사고를 일

으킨 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전무한 수준이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처벌을 담은 법률 근거가 없다보니 사고견에 취해지는 조치도 관할 지자체나 사고견 소유자의 의사 등에 따라 오락가락 하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시행까지 2년이나 남은



개정법에 따르면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보완 입법을 강조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진단검사의학의 모든 것

- 대학병원, 병원, 의원의 검사장비 및 검사시약 문의
- 학교, 연구소, 병원, 기관, 사업장의 장비인프라 구축 및 초안 제시
- 분자진단 전문업체 Covid 19 PCR System
- 최적의 검사장비와 경제성·효율성

메디넷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71번길 104 (우산동)
Tel. 062) 223-3822 Fax. 062) 223-3821